Mila and Marley



이야기 소개

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'수중 생명 보호(Life below water)'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밀라는 해변에서 잠이 들고, 플라스틱 병에 갇힌 거북이를 구하는 꿈을 꿉니다. 거북이 말리는 그 병이 어떻게 물속에 떠 있게 되었는지, 그리고 오염으로 인한 다른 피해들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. 잠에서 깨어난 밀라는 해변을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다짐합니다.

이 책을 읽는 팁

이 책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

- 아이는 파닉스 실력을 이용해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.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소리를 하나씩 내어 읽고,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.

- 다음 단어들은 자주 쓰이지만, 아이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:
  called oh people would
  책을 읽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이 단어들을 읽어 보세요. 책을 읽다가 이 단어들이 나오면, 필요에 따라 부모님이 먼저 읽어 주셔도 괜찮습니다.

주제 단어

아이는 주제 단어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아이와 함께 단어의 소리를 하나씩 읽고 이어서 읽은 뒤,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.

ditch (d-i-ch):
땅에 길게 좁고 파인 도랑
waste (w-ai-s-t):
쓸 수 없어 버리는 것

읽기 전에

- 앞표지를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? 그렇게 생각한 단서는 무엇인가요?

- 아이가 제목을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.
  질문: Mila는 누구이고, Marley는 누구일 것 같나요?

- 아이가 뒷표지를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.
  말해주기: 바다에 문제가 생겼어요.
  질문: 무슨 문제일까요?

- 3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. 여자아이가 잠이 들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설명해 주세요. 4~5 페이지를 펼쳐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그림을 그린 사람은 우리가 Mila의 꿈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? (그림 주위의 소용돌이 모양)

읽는 동안

- 아이가 이야기를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. 단어를 읽다가 머뭇거리면, 소리를 하나씩 읽은 뒤 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읽도록 격려해 주세요. 예를 들어 c-l-ou-d-s를 읽은 뒤 clouds라고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.

- 3~4 페이지를 읽은 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Mila는 왜 거북이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나요? (거북이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)

- 아이가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그림을 비교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.
  질문: 어느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나요?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

- 16 페이지를 읽은 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Mila는 왜 슬펐나요?

- 18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
  해변 정화 활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

읽은 후

- 질문: Mila는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?
- 질문: Mila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했나요?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
- 말해주기: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.

  질문: 누가 Mila를 도와주었나요?
- 질문: 해변 정화 활동이 끝난 뒤 Mila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?
- 질문: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Marley는 Mila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?
- 24 페이지의 스토리맵에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보세요. 그림을 활용해 아이가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도록 격려해 주세요.

[Mila and Marley]	
Palm tree	Ditch
Beach towel	Pipe
Flippers	Range hood
Flippers	Posters
Jellyfish	Letter
Coral	Sunset
Shore	



Level 5 Fiction

Mila and Marley (밀라와 마를리)

이야기 소개

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'수중 생명 보호(Life below water)'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밀라는 해변에서 잠이 들고, 플라스틱 병에 갇힌 거북이를 구하는 꿈을 꿉니다. 거북이 마를리는 그 병이 어떻게 물속에 떠 있게 되었는지, 그리고 오염으로 인한 다른 피해들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. 잠에서 깨어난 밀라는 해변을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다짐합니다.

□ P2: 밀라의 집은 해변에 있었습니다.

그녀는 모래와 푸른 바다를 좋아했습니다.

□ P3: 어느 날, 밀라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

"저 구름은 거북이 모양이네," 밀라는 하품하며 말했습니다.

□ P4: 밀라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.

그녀는 거북이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.

거북이는 파도 속에서 위아래로 뒤뚱거리고 있었습니다.

□ P5: 거북이의 지느러미가 플라스틱 병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.

"아, 안 돼!"라고 밀라가 말했어요.

"내가 도와줄게."

□ P6: 밀라는 플라스틱 병을 빼주었습니다.

"고마워," 거북이가 말했습니다.

□ P7: 밀라는 깜짝 놀랐어요. "말할 수 있어?"

"그래. 꿈속에서는 거북이가 말을 할 수 있어,"라고 거북이가 대답했어요.

□ P8: "내 이름은 마를리야." 거북이가 말했습니다.

"같이 수영하러 갈래?

"나는 밀라야. 정말 그러고 싶어!"라고 밀라가 말했어요.

□ P9: 그들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.

"내 등껍질을 붙잡아," 마를리가 말했습니다.

□ P10: "어떻게 그 병에 끼었어?" 밀라가 물었습니다.

"보여줄게," 마를리가 말했습니다.

□ P11: 바다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.

주변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!

□ P12: 플라스틱 병 하나가 밀라 옆으로 떠내려갔습니다.

"정말 끔찍해," 밀라가 말했습니다.

"맞아," 마를리가 동의했습니다.

"그리고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을 먹으면 아프게 돼."

□ P13: "플라스틱은 저 도랑에서 흘러 나와," 마를리가 말했습니다.

"쓰레기가 그 안에 버려져서 바다로 떠내려가."

□ P14: "그 도랑 때문에 바다가 갈색이 되는 거야?" 밀라가 물었어요.

"맞아" 마를리가 대답했습니다.

"하지만 그 폐수는 또 다른 파이프에서도 나와."

□ P15: "저기 봐!" 밀라가 외쳤습니다.

"저 파이프가 폐기물을 바다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어요."

□ P16: 밀라와 마들리는 해변으로 다시 수영해 왔습니다.

밀라는 슬펐어요.

"내가 도와줄게." 밀라가 말했습니다.

☐ **P17:** “밀라!” 엄마가 불렀습니다.

밀라는 잠에서 깼습니다.

“정말 이상한 꿈이었어요,” 밀라가 말했습니다.

☐ **P18:** 밀라는 꿈 이야기를 엄마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.

“해변 청소를 계획할 거예요,” 밀라가 말했습니다.

☐ **P19:** 다음 날, 밀라는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.

모두가 포스터를 만들어 여기저기 붙였어요.

☐ **P20:** 밀라의 선생님이 편지를 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.

밀라는 바다로 버려지는 폐수에 대해 항의하고 싶어 했습니다.

☐ **P21:** 그녀는 해변에도 쓰레기통을 놓아 달라고 요청했어요.

☐ **P22:**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 청소를 도우러 왔습니다.

☐ **P23:** 밀라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.

작은 지느러미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.

☐ **P24:** 이야기를 다시 말해 보세요